

# 유형별로 본 아동 어휘 발달 특성: 원어정보를 중심으로

최은아(나사렛대), 김수진(나사렛대), 신지영(고려대)

## <차 례>

- |                               |                                |
|-------------------------------|--------------------------------|
| 1. 서론                         | 3.2.1. 부사의 원어 정보별 단어 유형수와 빈도수  |
| 2. 연구방법                       | 3.2.2. 부사의 고빈도 어휘              |
| 3. 결과                         | 3.3. 관형사의 발달 특성                |
| 3.1. 명사의 발달 특성                | 3.3.1. 관형사의 원어 정보별 단어 유형수와 빈도수 |
| 3.1.1. 명사의 원어 정보별 단어 유형수와 빈도수 | 3.3.2. 관형사의 고빈도 어휘             |
| 3.1.2. 명사의 고빈도 어휘             | 4. 논의 및 결론                     |
| 3.2. 부사의 발달 특성                |                                |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Vocabulary of Korean Childre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Type of Words**

**Eunah Choi, Soo-Jin Kim, Jiyoung Shi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how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vocabulary of Korean children. In this study, word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origin of words: pure Korean, sino-Korean and foreign word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In common nouns, the rate of sino-Korean was 33.6% in 3 year-old children but 50.7% in 8 year-old children. Adverb and pre-nouns showed the similar rate. The rate of words with foreign origin was 10 ~11% in all age groups.

\* Keywords: The origin of words, Development of vocabulary

## 1. 서 론

어휘발달은 의미관계의 발달과 더불어 아동 언어의 의미발달 지표로써 언어진단 및 치료목표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보이는 아동들의 어휘발달 연구는 아동의 어휘발달 수준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표 어휘를 선정하는 데, 그리고 특수교육 및 언어치료 대상아들의 언어발달 수준을 점검하여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기준이 된다. 일반 아동의 체계적인 어휘지도를 위해서도 어휘 습득 순서에 따른 이상적인 기초 어휘목록 작성이 필요하며 [1], 이러한 정상 아동의 어휘 목록이 장애 아동의 언어지도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2].

그러나 어휘발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연령별 아동들에게서 나타나는 품사만 제시하는 등[3][4] 실질적인 어휘목록을 전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어휘발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거의 3세 이전의 초기 어휘발달만 다루거나 [5][6][7][8], 성인언어와 문어를 기준으로 한 연구들이기 때문에[9][10]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의 어휘진단 및 치료에서 활용도가 낮다. 또한 외국의 연구들도 전반적인 언어발달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휘적 양상이 개별언어마다 차이가 커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11][12][13][14][15].

소수의 구체적인 어휘를 밝힌 연구들도 분석 대상자가 한 명뿐이어서 한 아동의 어휘 발달을 해당 연령대의 전체 아동의 어휘발달로 대표하여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으며[16][17], 분석절차에서 성인언어의 모방이나 노래 가사도 모두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16]. 기초어휘에 대한 기존 연구의 한 결과[18]를 살펴보면 기능어와 내용어를 분류하지 않고 분석하여 기능어의 반복 출현의 영향으로 기능어가 대부분의 고빈도어를 차지하게 되고 내용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보통명사, 동사, 형용사 등의 내용어는 고빈도어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아동어휘의 발달지표를 좀 더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석대상인 아동의 수를 늘려야 하는 동시에 자연스러운 조건에서 자발화를 수집하여 내용어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휘의 다양한 유형, 즉 품사, 원어 정보, 문장 내 기능, 구성방법 등의 분류방식들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어의 분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품사별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조사, 감탄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19], 원어 정보를 기준으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 우리말의 특성상 한자어의 습득도 언어발달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화 경향과 더불어 신기술 보급 등으로 외래어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 언어에서 외래어의 비중도 변화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어휘의 폭발적인 발달 시기라고 일컬어지는 3, 4세에서 학령 초기에

해당되는 8세까지 아동의 어휘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의 원어 정보별로 어떻게 발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예비연구결과 품사들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진 보통명사, 부사, 관형사를 중심으로 단어를 원어 정보별로 분석하고 고빈도 어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원어 정보에 따른 분석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동사나 형용사는 대부분이 고유어로, 외래어나 한자어의 출현이 극히 제한되어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표준어를 사용하고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보이는 만 3세에서 8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연령별로 10명씩, 총 60명의 아동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으며, 성비는 각 연령별로 5 대 5가 되도록 하였다. 대상 아동의 선정에 있어서는 부모 보고를 바탕으로 아동들이 특이한 사항, 예를 들어 발달 지체나 조음 상의 문제 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 2.2 연구절차

#### 2.2.1. 자발화 수집 및 전사

학령 전기 아동의 경우는 주로 소꿉놀이, 그림책 보며 말하기, 아동이 선택한 사진 설명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수집자가 자연스럽게 아동의 발화를 유도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경우는 책을 읽게 한 후에 아동이 자신의 언어로 그 책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말하기, 소꿉놀이, 아동의 관심사에 대해 말하기 등등의 과제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가장 자연스럽게 아동의 발화를 유도하였다.

자발화의 유도 및 수집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언어치료 전공 대학원생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자발화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집과 관련한 유의 사항들을 3~4회에 걸쳐 사전 교육하였다. 자발화는 아동의 집에서 수집하였으며,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녹화하였고 수집 후 1~2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1차 전사 자료는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이 3차례 이상 반복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자발화의 발화 구분은 [20]과 [21]의 발화 원칙에 따랐다.

#### 2.2.2. 자료 분석

각 아동별로 500발화 이상을 수집하였는데, 이 가운데에서 자동 발화나 “네”, “아니오.”와 같은 대답은 생략하였고, 발화를 수집한 세 가지 맥락별(사진 이야기, 소꿉놀이, 그림책 재구성하기)로 100발화씩, 한 아동 당 300발화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선택된 발화들은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개발된 ‘지능형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였고 단어 분류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자체 개발)을 통해 연령별로 아동들의 어휘 수와 유형, 연령 증가에 따른 어휘 증가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형태소 분석기에 의해 분석된 결과는 연구자가 검토, 수정하고 이들을 품사별로 다시 원어 정보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분류하였다.

단어 구분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의미·형태로 된 최소의 자유 형식”을 단어의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22], 9품사 중 단어 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고유명사, 의존명사, 문장부사 등을 제외한 보통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등을 의사소통에서 의미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용어로 정의하였다[23]. 그러나 이들 내용어 가운데 동사와 형용사는 외래어나 한자어의 출현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나타나므로, 원어 정보에 따른 분석에서 의미가 없어 제외하였다. 따라서 보통명사와 부사, 관형사에서만 원어 정보에 따라 즉,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분하여 발달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원어 정보에 따른 분류는 ‘표준국어대사전’[24]을 참조하였다.

### 3. 결 과

#### 3.1. 명사의 발달 특성

##### 3.1.1. 명사의 원어 정보별 단어 유형수와 빈도수

<표 1>, <그림 1>은 보통명사의 원어 정보별 단어 유형수를 보여준다. 유형수는 얼마나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우리말의 특성 상 한자어의 습득은 필수적임을 반영하듯 3세 아동들도 이미 상당히 많은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어 정보별 유형수를 살펴보면 3세 때 고유어의 비율이 56%였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감소하여 8세에서는 40%를 차지하게 된다. 반면에 한자어의 비율은 3세 때 34%였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7세부터는 한자어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8세에 이르러서는 51%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고유어보다도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 <그림 2>는 사용 빈도에 따른 원어 정보별 유형수를 살펴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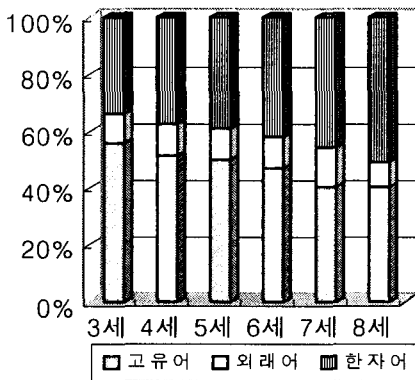
사용 빈도는 어휘 친숙도, 활용도 등을 반영하는 지수로 유형수와는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용 빈도에 따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연령별 평균 비율은 약 61.8%, 31.5%, 6.6%로, 유형수에 따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평균 비율은 약 40%, 50%, 10%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해도 한자어나 외래어보다는 고유어의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어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형(type)은 줄어들지만 전체 사용 빈도(token)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 명사 유형수(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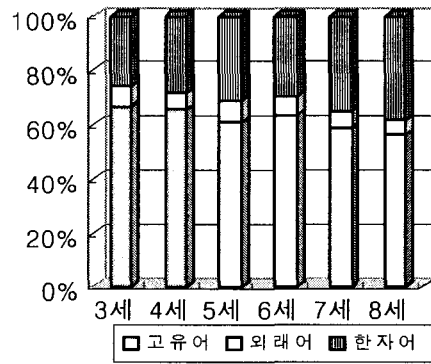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총합
3세	286	54	172	512
4세	274	58	200	532
5세	378	85	292	755
6세	408	98	363	869
7세	365	126	412	903
8세	462	104	581	1147

<표 2> 명사 빈도수(개)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	총합
3세	1745	183	688	2616
4세	1983	192	854	3029
5세	1853	249	944	3046
6세	2533	275	1178	3986
7세	2264	263	1353	3880
8세	2905	269	1993	5167



<그림 1> 명사 유형수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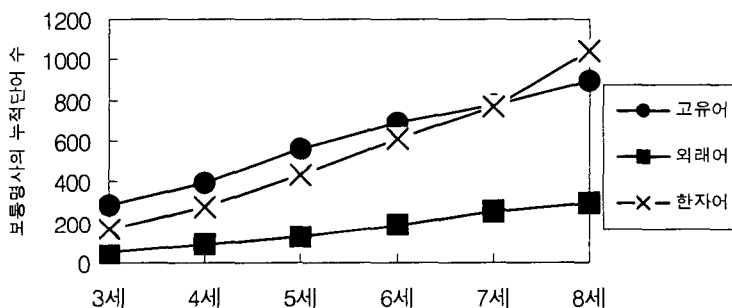
<그림 2> 명사 빈도수의 비율(%)

<표 3>은 보통명사의 원어 정보별 새 단어 수와 누적단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원어 정보별 보통명사의 새 단어 증가수를 살펴본 결과 고유어는 5세에, 외래어는 6, 7세에, 한자어는 8세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누적단어 수를 살펴보면 3세에서 8세에 이르면서 고유어는 3배, 외래어는 5배, 한자어는 6배가 증가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lt;표 3&gt; 보통명사의 연령별 새 단어 수와 누적단어 수(개)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고유어	새 단어	286	112	162	131	84	118
	누적단어	286	398	560	691	775	893
외래어	새 단어	54	34	43	59	61	41
	누적단어	54	88	131	190	251	292
한자어	새 단어	172	101	159	175	165	274
	누적단어	172	273	432	607	772	1046
총합	새 단어	512	247	364	365	310	433
	누적단어	512	759	1123	1488	1798	2231

<그림 3>은 연령별 누적단어의 증가추이를 보여 준다. 5세에서 6세 사이에 고유어와 한자어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lt;그림 3&gt; 보통명사의 누적단어 수(개)

누적단어 수에 있어서 7세까지는 고유어가 계속 높게 나타나지만 8세에 이르면 한자어가 고유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누적단어 수에서도 한자어의 비율이 고유어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 3.1.2. 명사의 고빈도 어휘

자발화 수집 맥락의 영향으로 자주 사용된 ‘늑대, 사냥, 모자, 숲’ 등을 제외하고 높은 빈도로 사용된 보통명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유어 중 3세에서 출현하여 전체 연령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된 단어들은 ‘엄마, 때, 집, 할머니, 언니, 동생, 사람, 다음, 애, 오빠, 밥, 이제, 날, 안, 말, 물, 누나, 옷, 속, 아이, 혼자, 토끼, 아줌마, 뽕, 손, 꽃, 애기, 나무, 뒤, 머리, 소리, 일, 눈, 생각, 앞, 배, 할아버지, 길, 쪽, 아저씨, 옆, 다람쥐, 위, 오늘, 개, 밤, 진짜, 애기, 코, 아기, 자, 거울’

등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엄마’로 1061회나 보이고 있었다.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는 ‘안, 속, 밖, 뒤, 앞, 옆, 위’ 등 ‘아래’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3세에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어휘는 3세까지 ‘다음, 이제, 오늘’ 이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강아지, 이쪽, 그림, 놀이, 고양이, 이름’이나 ‘옛날, 장난감’ 등을 제외하면 모두 단일어에 해당된다. 고빈도어의 특징은 초기(3세)부터 나타나는 것이며, 고유어이고 또한 단일어임을 알 수 있다.

한자어 중 전체 연령 대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된 단어들은 ‘친구, 의자, 선생, 생일, 책, 사진, 방, 이모, 침대, 선물, 학교, 여자, 냉장고, 공주, 공부, 은행, 남자, 문, 원래, 목욕, 괴물, 동물, 전화, 형, 계속, 차, 과자, 반, 만화, 음식, 안녕, 왕자, 회사, 시간, 식탁, 마녀, 마법, 산, 결혼, 모양, 세수, 인형, 병, 기차, 사과, 이상, 축하, 고모, 영어, 이번, 거실, 모습, 색, 주인, 지금, 공룡, 백설, 학원’ 등이며 ‘모자’를 제외하고(맥락 때문에 제외) 가장 많이 출현한 단어는 ‘친구’로 191회 출현하였다. 또한 이 중 ‘반, 음식, 시간, 마녀, 마법, 산, 인형, 병, 이번, 모습, 주인, 백설, 화’ 등을 제외한 모든 단어들은 3세에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치원, 화장실’이나 ‘책상, 자동차, 색깔’ 등을 제외한 모든 단어들은 단일어에 해당된다.

외래어 중 높은 빈도로 출현한 단어들은 ‘텔레비전, 빵, 게임, 비디오, 아이스크림, 햄버거, 소파, 컴퓨터, 콜라, 가방, 불, 버스, 피아노, 샌드위치, 스티커, 엘리베이터, 케이크, 커피, 파티, 그린, 스펀지, 카드, 망토, 스파게티, 카메라, 라디오, 체리, 택시’ 등이며 그 중 ‘텔레비전’이 135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스티커, 엘리베이터, 파티, 그린, 스펀지, 카드, 망토, 스파게티, 카메라, 체리’ 등은 4세 이상에서 출현하였고 나머지는 3세에서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 3.2. 부사의 발달 특성

### 3.2.1. 부사의 원어 정보별 단어 유형수와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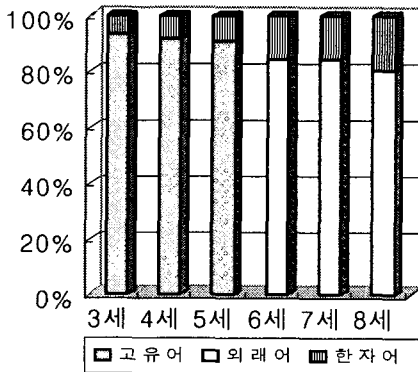
<표 4>는 부사의 원어 정보별 유형수를 보여준다. 고유어는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반면에 한자어는 계속 증가하여 한자어의 비율이 3세에 7%인 것이 8세에는 19%로 그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3세에서 8세에 이르면서 고유어 유형수가 1.7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 한자어는 거의 6배 정도 증가하여 부사도 다른 품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유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중이 감소하고 한자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5>는 사용 빈도에 따른 부사의 원어 정보별 단어 수를 살펴본 것이다. 8세가 5세에 비해 고유어가 2배 이상, 한자어가 5배 이상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빈도에 따른 단어 원어 정보별 비율에서 고유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데 이는 한자어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lt;표 4&gt; 부사 유형수(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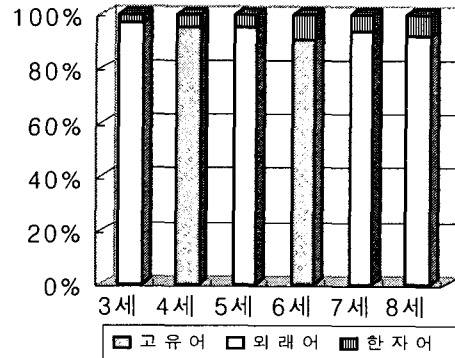
	고유어	한자어	총합
3세	72	5	77
4세	75	7	82
5세	112	11	123
6세	127	24	151
7세	106	20	126
8세	121	29	150

&lt;표 5&gt; 부사 빈도수(개)

	고유어	한자어	총합
3세	462	14	480
4세	528	28	556
5세	649	35	684
6세	892	97	989
7세	752	49	801
8세	1090	98	1188



&lt;그림 4&gt; 부사 유형수 비율(%)



&lt;그림 5&gt; 부사 빈도 비율(%)

<그림 5>의 사용 빈도에 따른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율과 <그림 4>의 단어 유형수에 따른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율을 비교하면 고유어의 사용 빈도가 한자어의 사용 빈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사의 원어 정보별 유형수에서 6세 이후에 한자어의 습득이 크게 증가하기는 하지만 고유어가 더 고빈도어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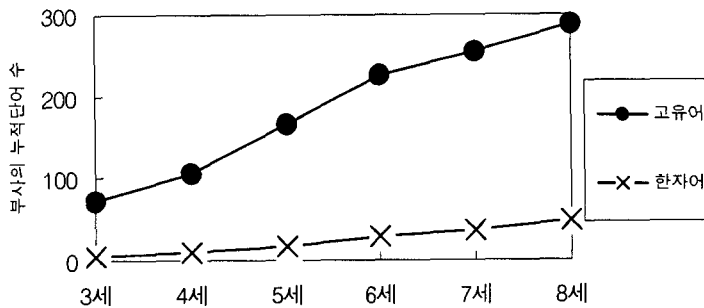
<표 6>은 부사의 원어 정보별 새 단어 수와 누적단어 수를 나타낸 것이다. 새 단어 수를 보면 고유어는 5세와 6세에서 가장 많이 습득하고 있으며 한자어는 6세와 8세에 가장 많이 습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6>은 부사의 누적단어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3세에는 부사의 유형수가 약 70개 정도이지만 4세 이후 크게 증가하여 6세에는 3세보다 3배 이상 많아졌다. 보통명사와 비교할 때 한자어보다는 고유어의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부사의 새 단어 수와 누적단어 수(개)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고유어	새 단어	72	33	60	61	28	33
	누적단어	72	105	165	226	254	287
한자어	새 단어	5	5	6	14	7	11
	누적단어	5	10	16	30	37	48
총합	새 단어	77	38	66	75	35	44
	누적단어	77	115	171	256	291	331



<그림 6> 부사의 원어 정보별 누적단어 수(개)

### 3.2.2. 부사의 고빈도 어휘

부사의 원어 정보별 고빈도 어휘를 보면 고유어 중에서는 ‘다’가 513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한자어 중에서는 ‘지금’이 81회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밖에 높은 빈도로 사용된 ‘안, 그냥, 잘, 왜, 같이, 막, 못, 좀, 많이, 너무, 다시, 딱, 더, 그럼, 빨리, 조금, 먼저, 아니, 갑자기, 어서, 자꾸, 아주, 아직, 아까, 언제, 그만, 꼭, 아직도, 거의, 멍멍, 응아, 벌써, 몰래, 일찍, 치카치카, 없이, 남남’ 중에서 ‘갑자기, 아주, 거의, 벌써, 몰래, 일찍, 없이’ 등을 제외한 다른 단어들은 모두 3세에 출현하여 꾸준히 사용되었다. 그리고 한자어 중에서는 ‘지금, 제일, 별로, 잠깐, 매일, 점점’ 등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지금, 잠깐’을 제외한 단어들이 모두 4세 이후에 출현하였고 그 외의 한자어 부사 대부분이 6세 이상에서 출현하였다.

### 3.3. 관형사의 발달 특성

#### 3.3.1. 관형사의 원어 정보별 단어 유형수와 빈도수

관형사에서는 수사가 관형사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와 합성어인 ‘온갖’을 제외

하고 모두 단일어에 해당되었고 관형사에서도 부사와 마찬가지로 외래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은 관형사의 원어 정보별 단어 유형수와 비율을 보여준다. 관형사에서 한자어가 출현한다고는 하나 고유어의 비율이 약 87%를 차지하여 부사에서의 고유어와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보통명사에서 고유어의 비율보다는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한자어 관형사는 6세와 8세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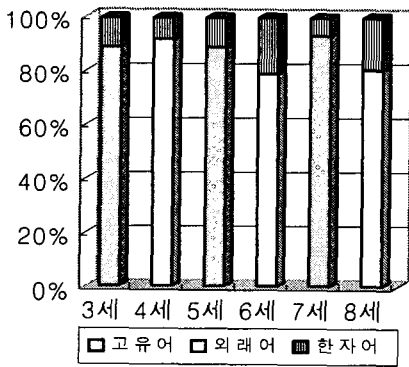
<표 7> 관형사 유형수(개)

	고유어	한자어	총합
3세	16	2	18
4세	21	2	23
5세	24	3	27
6세	30	8	38
7세	29	2	30
8세	33	8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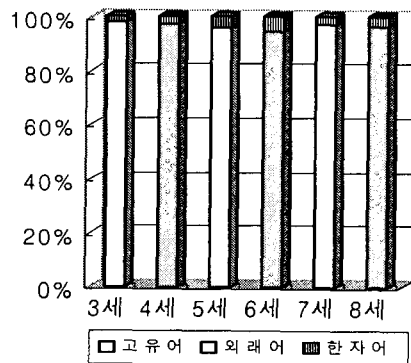
<표 8> 관형사 빈도수(개)

	고유어	한자어	총합
3세	96	2	98
4세	142	4	146
5세	213	9	222
6세	378	20	398
7세	363	9	372
8세	682	25	707

<표 8>은 관형사의 원어 정보별 사용 빈도에 따른 단어 수를 보여 주는데 단어 유형수에서는 연령이 3세에서 8세로 증가함에 따라 고유어는 2배(16→33), 한자어는 4배(2→8) 증가하는데서 그친 반면에, 고유어는 7배(96→682), 한자어는 12.5배(2→25)로 단어 사용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단어 유형수 비율(%)



<그림 8> 사용 빈도수 비율(%)

<그림 7>의 단어 유형수에서의 비율과 <그림 8>의 사용 빈도에 따른 비율을 비교해 보면 관형어 역시 명사, 부사와 같이 고유어가 훨씬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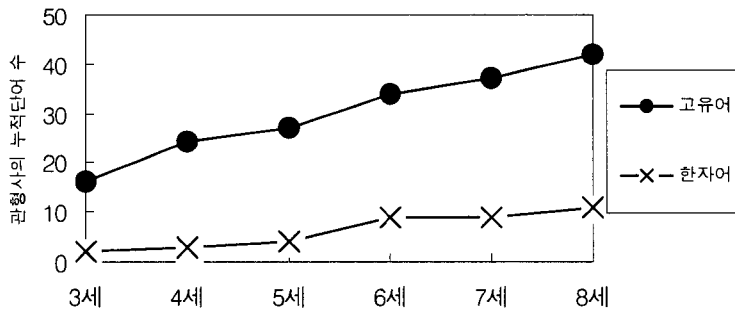
관형사의 유형수를 살펴보면 6세와 8세에서 한자어의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용 빈도에 따른 비율에서도 다른 연령에 비해 6세와 8세에서는 한자어의 사용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에 관형사의 새 단어 수와 누적단어 수를 연령별로 제시하였다. 관형사 중 고유어의 누적단어 수는 3세에 16개에서 8세에는 42개로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자어도 3세에는 2개밖에 출현하지 않았지만 8세에는 11개 이상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관형사의 새 단어 수와 누적단어 수(개)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고유어	새 단어	16	8	3	7	3	5
	누적단어	16	24	27	34	37	42
한자어	새 단어	2	1	1	5	0	2
	누적단어	2	3	4	9	9	11
총합	새 단어	18	9	4	12	3	7
	누적단어	18	27	31	43	46	53

관형사의 누적단어 수를 보여주는 <그림 9>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 관형사의 단어 증가율이 5세에서 6세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9> 관형사의 누적단어 수(개)

### 3.3.2. 관형사의 고빈도 어휘

고유어 관형사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그”로 624회 사용되었으며 그 밖에 “한, 두, 맨, 이, 다른, 이런, 무슨, 세, 저, 네, 몇, 어느, 새, 아무, 온, 내, 다섯, 여러, 여섯, 올, 판, 일곱, 첫, 아홉, 어절, 열, 여덟, 열두, 뒤, 요, 고운, 그런, 모든, 바른, 스무, 오른, 외판, 웬, 지난, 열한, 온갖” 등이 나타났다. 그 중 “판, 일곱, 첫, 아홉, 어절, 열, 여덟, 열두, 뒤, 요, 고운, 그런, 모든, 바른, 스무, 오른, 외판, 웬, 지난, 열한, 온갖” 등은 모두 4세 이상에서 출현하였다. 수관형사 중 “하나”에

서 “넷”까지는 3세에서 출현하였고 그 이상은 4세 이상 연령에서 출현하였다.

한자어 관형사 중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 것은 “제”로 24회 사용되었으며 그 밖의 한자어 관형사는 “삼, 만, 총, 백, 신, 반, 별, 전, 약, 천” 등이 있는데 “삼, 반, 별”을 제외한 다른 관형사는 모두 4세 이상에서 출현하였다. 관형사는 다른 품사에 비해 출현 연령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단어를 원어 정보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누어 연령별 단어의 비율과 유형수, 사용 빈도, 증가량 등을 살펴보았다. 단어 유형수로 보면, 고유어의 비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 때 약 60%에 달하던 것이 8세에는 약 40%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외래어와 한자어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외래어는 10%에서 14%로, 한자어는 약 33%에서 약 50%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단어 유형수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고유어는 감소하고 한자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용 빈도에 따르면 전 연령층에서 한자어보다는 고유어가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결국,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자어나 외래어의 습득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어휘발달을 품사의 측면에서만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원어 정보에 따른 발달 특성을 알아보았다. 즉 아동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한자어나 외래어를 습득하고 있는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습득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구체적 단어 목록을 제시하여 아동의 어휘발달 양상을 보여준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위 결과와 아울러 고빈도 어휘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이 단어들은 3세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전체 연령에서 고루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명사 중 한자어는 20회 이상 사용된 단어가 63개였는데 이 중 78%가 3세에 출현하였다. 외래어에서도 10회 이상 사용된 단어 중 50% 이상이 3세에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초기 습득 어휘들이 바로 아동들이 우선 습득해야 하는 기본 어휘이며 일반 아동뿐 아니라 언어장애 아동의 언어치료 시에도 먼저 선정해야 하는 어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고빈도 어휘의 특성은 초기 발달 어휘라는 점 이외에도 원어 정보별로는 고유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단어구성 차원에서 본다면 합성어나 파생어보다 단일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원어 정보별 고빈도 어휘의 또 다른 세부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보통명사의 경

우는 3세에 '아래'를 제외한 모든 위치어가 나타나고 있으나, '다음, 이제, 오늘' 이외의 시간 관련 어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간과 관련된 단어보다는 위치와 관련된 단어가 먼저 발달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품사별 어휘특성을 살펴본 이전 연구결과[25]에 따르면, 동사나 형용사의 경우는 외래어나 한자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사와 관형사의 경우도 외래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통명사만을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부사와 관형사는 고유어와 한자어로만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부사의 경우 단어의 유형수에 있어서 한자어의 비율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는데 사용 빈도에 있어서는 고유어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학령 전 아동 뿐만 아니라 학령기 초기의 아동들도 지속적으로 한자어 부사보다는 고유어 부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형사에서도 다른 품사들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유어의 유형수 비율은 감소하고 한자어의 유형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는 연령별로 1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절차상 발화수집 과정에서 제시한 그림책이나 상황설정으로 인해 다소 제한된 단어들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결과에서 제시한 어휘들을 아동의 대표 어휘로 선정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맥락에서 대규모의 자료를 수집하고, 발달단계에 따른 종단적인 말 자료 분석 연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한국어 사용 아동의 어휘발달을 품사 및 원어 정보별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발화 분석을 통하여 고빈도 어휘를 제시함으로써, 일상대화를 반영하는 언어검사의 단어목록이나 언어치료의 목표단어 목록을 구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초기발달 어휘가 고빈도 어휘임을 감안할 때, 외국인들에게 우리말 회화를 가르칠 때 우선 습득해야 할 우리말 단어의 목록을 선정하는 데도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어사용능력의 진단과 치료 및 교육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이 일상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 자료 발달지표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 [감사의 글]

거친 원고를 다듬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참고문헌

- [1] 김광해, “어휘교육의 방법”, *국어생활*, 제22호, pp.108~125, 1993.
- [2] 최성규, “장애 아동의 어휘 지도를 위한 아동의 기초 어휘 난이도 분석”, *특수교육 연구*, 제6집, pp.53~72, 1999.
- [3] 이종구, “유아 언어 발달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논문집*, Vol. 5, No. 1, pp.171~187, 1989.
- [4] 이연섭, 강문희, *유아의 언어교육*, 창지사, 1997.
- [5] 이인섭, “아동어 연구 개관: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15호, pp.25~48, 1986.
- [6] 이현정, 박창일, 박은숙, et al., “아동의 구문발달에 따른 용언의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8권, 제1호, pp.20~40, 2003.
- [7] 조명환, *한국아동의 언어획득연구: 책략모형*,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8] 최은희, *한국 아동의 어휘발달연구: 13~30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9] 임흥빈, 한재영, *국어 어휘 분류 목록에 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1993.
- [10] 임지룡, “20세기 이후 국어 어휘의 사용실태와 조어론적 특성”, *국제학술회의논문집*, pp.273~296, 2002.
- [11] H. Benedict, “Early lexical development: Comprehension and product”, *Journal of Child Language*, 21, pp.85~123, 1979.
- [12] R. A. Brown R, *First Language: The Early Sta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13] R. E. Owens, *Language Developments: An Introduction*, Allyn & Bacon, 2001.
- [14] M. Tomasello, *First Verbs: A Case Study of Early Grammatical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15] B. S. Wood, *Children and Communication*, Prentice-Hall, 1981.
- [16] 이인섭, “유아어휘 - 현영, 현주의 어휘”,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5호, pp.17~45, 1976.
- [17] 황미하, *2,6-3;5세 아동의 언어습득에 관한 종단적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18] M. C. Caselli, P. Casadio, and E. Bates, “Lexical Development in English and Italian”, *Language Development: The Essential Reading*, Blackwell Publishers, 2001.
- [19]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93.
- [20] 김영태,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학지사, 2002.
- [21] 김봉주, *형태론*, 한신문화사, 1984.
- [22] 최규홍, *아동의 어휘이해 발달 수준에 적합한 주요 내용어 선정 연구*, 대구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3]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 [24] 두산 동아 편집부, *동아 새 국어사전*, 두산 동아 출판사, 2004.
- [25] 최은아, *3세에서 8세 아동의 내용어 어휘발달 연구*, 나사렛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접수일자 : 2004년 11월 15일

게재결정 : 2004년 12월 3일

▶ 최은아(Eunah, Choi)

주소 : 330-718 충남 천안시 쌍용동 456번지

소속 :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E-mail : eunah-choi@hanmail.net

▶ 김수진(Soo-Jin Kim)

주소 : 330-718 충남 천안시 쌍용동 456번지

소속 : 나사렛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전화 : 041) 570-7978

E-mail : sjkim@kornu.ac.kr

▶ 신지영(Jiyoung Shin)

주소 :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소속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 02) 3290-1973

FAX : 02) 926-8385

E-mail : shinjy@korea.ac.kr